

# 무주군, 코로나19 안심숙소 운영

### 24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무주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시설 가동

무주군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또는 동거인을 분리할 수 있는 일상회복 안심숙소(이하 안심숙소)를 지정·운영(12.24.~상황 종료 시까지)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반딧불 청소년수련원.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총 18객실(분관 13실, 별이 쏟아지는 집 5실)을 갖춘 무주반딧불 청소년수련원을 안심숙소로 지정했으며 본관(3층)은 재택치료자, 별이 쏟아지는 집(1층)은 재택치료자 동거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1인 1실)할 예정이다.

안심숙소에는 욕실과 침대,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인터넷, 헤어드라이기 등의 편의시설과 용품 등이 구비돼 있으며 취사는 불가하다.

입소대상은 다(多)인 가족 중 1인 확진 시 자택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환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밀접접촉(확진자와 분리)을 원할 경우) 및 미접촉(확진자의 재택치료로 인해 임시 거주 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족(동거인) 등이다. 안심숙소는 확진자 발생 시 재택치료자 분류 기준에 따라 활용될 계획이다.

무주군 재택치료 추진단 김희옥 단장(부군수)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입원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다"며 "재택치료 시 동거 가족 간 감염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안심숙소 지정·운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치료 자택 이용자와 안심숙소 이용자 모두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현재 재택치료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으로 건강관리반(병상대기관리)과 이송반, 격리관리반(전담 공무원 12명)에서 최상의 의료대응체계를 구축·실행해 나가고 있다.

안심숙소 이용자에 대한 이송 및 동선, 상시 모니터링, 시설보완, 식사 및 필요물품(침구류, 의료키트 및 식료품 등)지원, 폐기물처리, 협력 약국 지정 등 관리에 대해서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무주군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와 의료지원, 안전재난, 환경위생, 시설사업소 등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2월 21일 현재 무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52명이며 재택치료자는 1명으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대상은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 장애 70세 이상(예방접종완료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농촌건축 아카데미 개최

### '무주 공공건축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로 열려

무주군은 21일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2021 무주군 농촌건축 아카데미'를 열고 농촌건축과 무주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 농촌건축 아카데미에는 김희옥 부군수를 비롯한 남해경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 김승근 우석대 건축학과 교수 등 공공건축 전문가들이 참석해 '무주 공공건축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무주의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다했다.

아카데미는 '주년을 행복하게 하는 '감응건축'이 무주만의 차별성이자 공

공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안점을 두고 개최됐으며 '故 정기용 건축가'를 주제로 한 △정기용과 함께한 시간의 회고, △말하는 건축의 영상과 정기용,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무주프로젝트 등 다양한 강연 및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한국농촌건축학회 남해경 회장을 좌장으로 영남대 도현학 교수 등 6명의 발제자가 "무주 공공건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무주공공건축의 방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이 참석해 농촌지역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해 무주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희옥 부군수는 "이 시간이 우리군이 당면한 농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도약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무주, 도시민들이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농촌건축 학술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제2회 무주발전소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무주 발전소'를 주제로 한 9점의 건축설계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과 한국농촌건축학회는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2017년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활력과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장수군이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1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보안관리, 인적보안, 사이버위기관리, 자료보안 등 6개 분야

55개 평가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엄격한 평가다.

군은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장수군 정보보안업무 지침' 예규 제정과 소속·산하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감사 실시, 용

역업체 사용 PC와 기판 업무망 분리 등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에 주기적으로 정보보안담당자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분야 현장점검과 방문교육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군청뿐만 아니라 소속기관들의 정보보안 의식이 향상한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비대면 유통 트렌드에 부합하는 온라인홈쇼핑 시장 진입을 위해 오는 23일 라이브커머스 첫 방송을 개시한다.

# 진안고원몰 라이브커머스 시동

### 온라인홈쇼핑 시장 진입 위해 23일 첫 방송 개시·할인 판매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비대면 유통 트렌드에 부합하는 온라인홈쇼핑 시장 진입을 위해 오는 23일 라이브커머스 첫 방송을 개시한다.

진안고원몰은 10월 8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오픈기념 행사와 김장철 진안고원 절임배추 특별판매 이벤트 등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현재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인 결과 네이버 쇼핑포탈인 스마트스토어의 파워등급을 달성해 무료 라이브커머스 채널 이용 권한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진안고원몰은 이제 네이버쇼핑 라이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3일 첫 방송은 오전 11시 나눔푸드의 어린이 홍삼제품인 '젤리홍'과 여성층을 타겟으로 개발한 홍삼플라젠 제품인 '2유있는 홍삼플라젠'을 소개하며, 유명 쇼핑호스트 허재무(누비온

이사)와 나눔푸드의 임직원이 출연해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어서 오후 1시부터는 마이산약초 건강에서 불면증과 불안증에 도움이 되는 '힐초차'와 여성호르몬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가지차'를 1시간 동안 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라이브커머스 방송 중 구매자에게는 기존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준비된 사은품 60여개도 제공한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농산물 판매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흐름을 읽어 다양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진안고원몰 농가 및 업체들에게 쇼핑라이브 채널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기획하고 출연해 판매할 수 있는 자생력 제고에도 적극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진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나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단위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지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한 평가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진안군은 예산군, 남해군, 산청군과

함께 군 그룹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가 수여될 예정이다.

군은 지방세외수입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금융 압류, 번호판 영치, 경매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오랫동안 묵어온 고질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에는 전북도 주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군, 6월에는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우수군과 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군에 선정되어 올 한 해 동안 2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내년 흑호랑이해 신년화두 '근고지영'

장수군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신년화두로 '근고지영(根固枝榮)'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근고지영'은 든든한 뿌리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장수군은 지난 민선7기 탄탄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군은 올 한 해 지난해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노력해왔다.

지난 10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전 군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장수군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으며,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민생회복은 물론 미래 먹거리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도시로 도약했다.

장수군은 내년 가야역사관 개관을 비롯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보금자리 개소, 장수군립체육관 건립 등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한 여업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전 군민 내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최근 자전거 마니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에 거주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험 보장이 열리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1년간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혜택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총 7종이 보장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전거사고 사망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하게 돼 자전거 이용자들의 확대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